





생각하고 나누는 톡톡

talk
& talk

교실



이야기에 나오는 세 명의 주인공에게는 모두 별명이 있습니다. ‘명탐정’ 백지원, ‘느림 보 파브르’ 윤희성, ‘벌써부터 날라리’ 최서아입니다. 세 주인공에게 여러분이 새로운 별명을 지어 주세요.



백지원:



윤희성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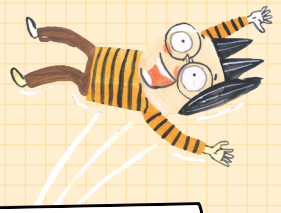


최서아:



2

부모님들은 왜 주인공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?


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dashed line on the left side,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above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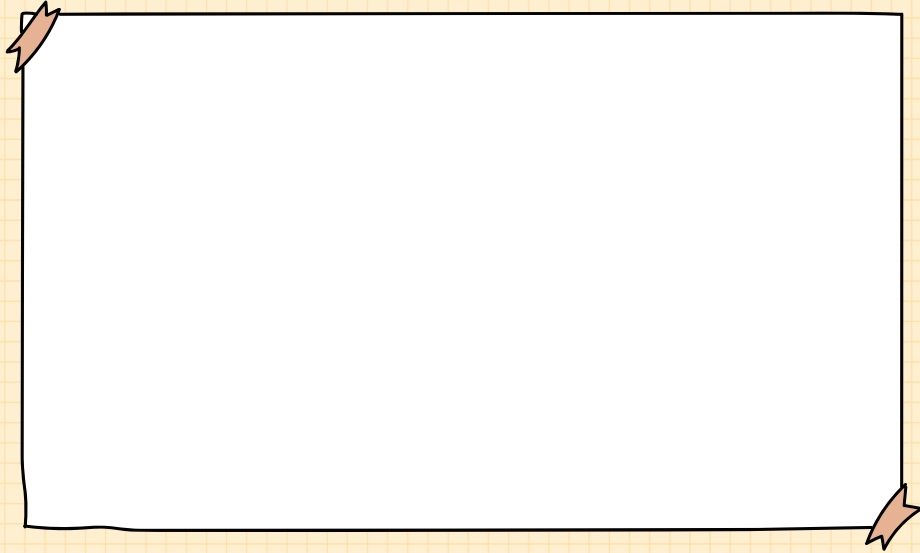
3

어른들이 걱정하는 주인공들의 약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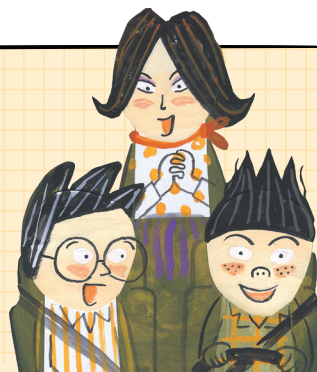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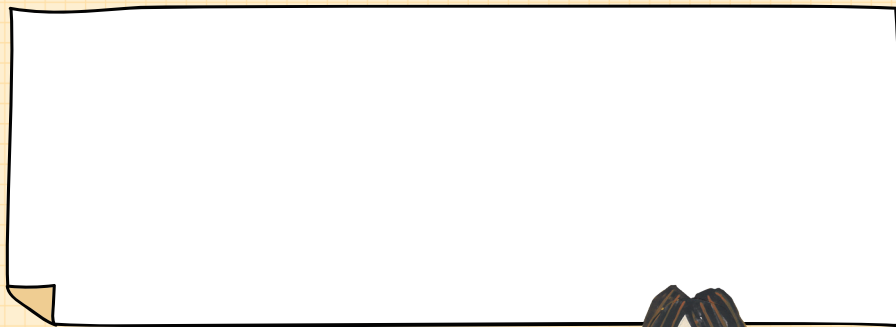
A large,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folded bottom-left corner, intended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above.



4 잠재력은 숨어 있는 힘이라서 위기의 순간에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. 세 명의 주인공은 위기의 순간에 잠재력을 발휘합니다. 어느 장면에서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찾아 볼까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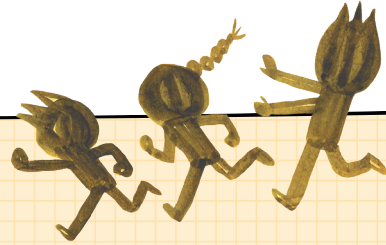


5 세 명의 주인공은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나요?



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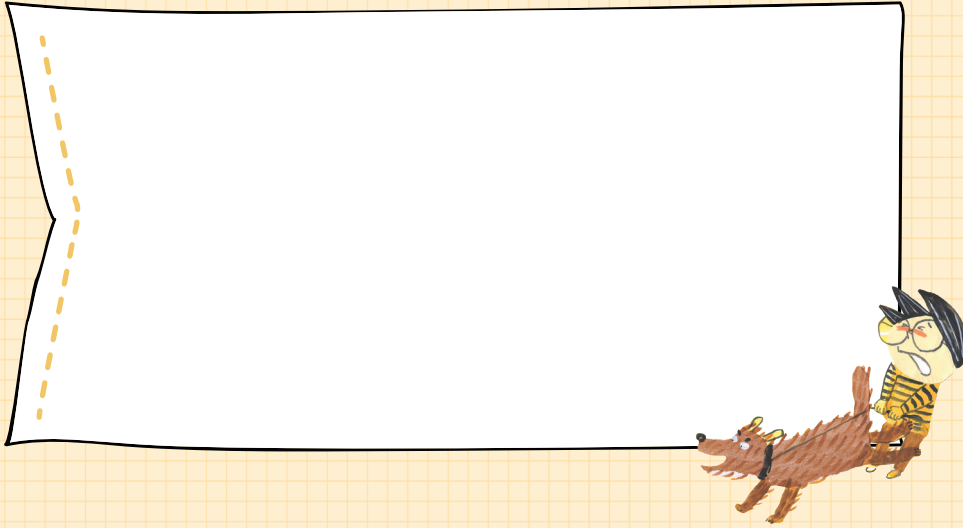
주인공들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과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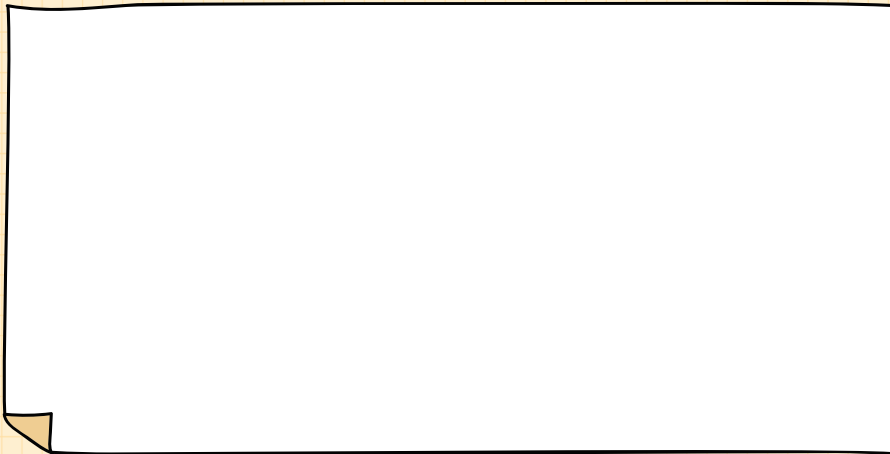
7

지금 나에게 스스로 별명을 지어 준다면?

8 잠재력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고 해요. 여러분은 만약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,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은가요?



9 잠재력이 성공하려면 '협력'을 통해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. 여러분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과 '협력'을 통해 잘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?





꿈을 이루고 행복한 어른이 되어 ‘노란 버스’를 타고 과거로 잠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장면으로 가고 싶나요? 그 시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 남겨 보세요.

